

여야,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 “비현실적” vs “공격적 예방”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3차 추경에서 (백신 접종 물량) 62세에서 64세까지 221만명을 확대해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변에 독감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으로 환자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대부분이 공격개발원조(ODA)로 구분돼 갑작스러운 파기를 하면 국제적인 신임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수출제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의 비중, 추경이라는 예산이 한정되

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책을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백신 무료 접종이 코로나19 대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통신비를 안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민심달래기용 전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국민들은 무료 접종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최소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 때라도 전국민 무료 백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과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무료 접종 확대는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민주당 “독감 시즌 이미 지나가…현실성 없는 정치공세” 국민의힘 “통신비 민심달래기용…코로나 대비 더 중요”

을 무료 접종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죠?”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WTO 보고에 따르면 남반부에서 독감 시즌이 지나갔다. 이번에 독감 감염 환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한다”며 “무료 접종 확대 방안으로 독감 백신 수출을 금지해서 국내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

어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과 다양한 요건을 살펴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관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식적으로 전국민에게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볼 때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낼 수 있고, 불가능할 수 있다. 의료적 관점에서 확보한 물량을 우선 집

중대상자에게 접종하는 게 올바르다”

與, 화상 의원 워크숍…이낙연 “가장 시급한 건 4차 추경”

“추석 전 민생 안전 처리…협상할 건 협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

롯한 주요 입법과제 점검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가 벼랑에 몰린 사람들을 급한대로 돕자는 것인 만큼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혜로 여야가 22일 추경 통과 일정에 합의했기에 추석 전 상당한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그 안에 원만하게 내용도 충실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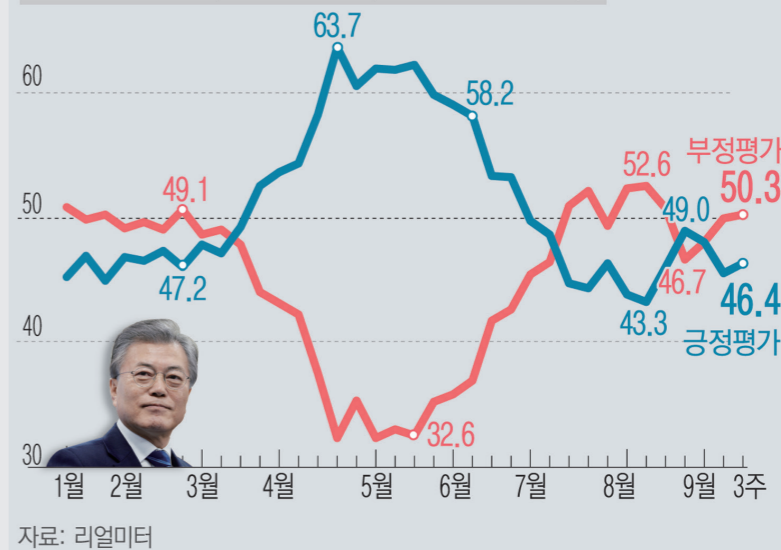
또한 “추경 처리가 끝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 민생안전이 기다린다”며 “그것도 추석 이전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원칙 있는 협치를 말했지만 협상이 가능한 것은 협상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지지도 46.4%…20대서 4.3%p 올라

부정 '50.3%'…2주 연속 50%대
총청·보수·자영업 하락 폭 급증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주중 집계, 단위:%

9월14~16일 TBS의리, 1512명 응답완료, 95%신뢰수준(±2.5%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1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이탈세를 보였던 20대에서의 긍정평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리로 실시한 9월3주차(14일~16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8%포인트 오른 46.4%(매우 좋음 27.6%, 잘하는 편 18.9%)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상승한 50.3%(매우 잘못함 35.7%, 잘못하는 편 14.6%)로 집계됐다. 3주 연속 상승세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감소한 3.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9%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9월2주차 주중 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45.6%, 부정평가가 50.0%를 기록하며 3주만에 오차범위 밖을 기록했는데, 1주만에 금·부정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소폭 좁혀졌다.

그간 긍정평가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 20대(4.3%p ↓,

36.6%→40.9%, 부정평가 53.8%)의 지지도는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사무직(4.0%p ↑, 51.8%→55.8%, 부정평가 42.8%)과 학생(3.1%p ↑, 34.0%→37.1%, 부정평가 53.7%)도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했다.

중도층(3.0%p ↑, 39.3%→42.3%, 부정평가 55.0%)도 문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다.

부산·울산·경남(10.4%p ↑, 37.8%→48.2%, 부정평가 51.2%)과 광주·전라(4.0%p ↑, 67.8%→71.8%, 부정평가 24.7%)에서도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12.9%p ↓, 49.1%→36.2%, 부정평가 57.6%), 보수층(7.1%p ↓, 26.7%→19.6%, 부정평가 80.0%), 자영업(3.1%p ↓, 43.1%→40.0%, 부정평가 57.6%)

등에서는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11일) 45.6%(부정평가 50.8%)로 마감한 후 큰 변동 없는 흐름을 보였다.

14일에는 45.5%(0.1%p ↓, 부정평가 51.1%), 15일(화)에는 45.5%(0.0%p, 부정평가 51.4%), 16일(수)에는 45.8%(0.3%p ↑, 부정평가 50.6%) 등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2만760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2명 응답을 완료해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소병철 “소공연 회장 해임 계기 소상공인 대변 역할 충실해야”

감사원에 중기부 감사 통한 소공연 문제점 점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소공연이 코로나19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켜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전남과 순천의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서 법

사위에서 배 회장의 비위행위와 소상공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중기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기부 감사에서 점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현장조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배동욱 회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하고 보조

금 환수 시정명령과 불합리한 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순천과 전남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순천·전남의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